

【특별좌담】

코로나19 이후의 신앙과 삶

- 일시: 2020년 5월11일(월) 오후
- 장소: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박동호 신부(사회), 맹제영 신부(의정부교구 총대리), 한경호 신부(곤솔라따선교수도회), 강신숙 수녀(성가소비녀회), 안충석 신부(서울교구 원로사목자), 노동준 신부(이문동성당 보좌), 이영우(서울교구 빈민사목 담당), 강현우(서울교구 빈민사목 담당), 한창현 신부(성바오로회), 오민환(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연구실장)

시작기도 : 주님의 기도(다함께)

박동호(사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신앙과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쁨과희망> 준비한 특별좌담회 사회를 맡은 박동호 신부입니다. 서로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신부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강현우: 저는 서울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삼양동 선교본당의 강현우 마르티노입니다.

안충석: 네, 저는 서울교구 원로사제 안충석 신부입니다.

노동준: 안녕하세요. 이문동 성당 보좌신부로 있고, 2020년에 서품 받은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한경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끈솔라따 선교수도회 한경호 베드로입니다.

이영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봉천3동 선교본당 이영우 신부입니다.

강신숙: 안녕하세요. 성가소비녀회 강신숙 디모테오 수녀입니다.

오민환: 저는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의 오민환 바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박동호: 맹제영 의정부교구 총대리 신부님이 지금 오시는 중인데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함세웅 신부님께서도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안타깝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태는 저처럼 사제생활 한참 하던 신부들에겐 정말로 완전히 낯선 환경을 느닷없이 만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노동준 신부님은 하나도 낯설지 않은 원래부터 이런가보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웃음) 또 원로사제계선 오랜 사목 경력에 따라서 이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성찰이 있으실테고요. 수녀님이나 수도회에 계신 신부님께서도 코로나19가 수도공동체 생활 전반에 또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떤 영향 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물꼬를 트기 위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 해 말 등장한 이후, 올해 2월 19일 대구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의 수요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이 사태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또 전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그토록 교리, 신학적으로도 사목적으로도 가톨릭교회의 중앙 기둥처럼 여기던 성삼일, 부활대축일마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교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사를 전례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도 아주 어렵게 조심스럽게 풀면서, 우린 그걸 ‘미사를 재개 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쓰는 용어도 ‘함께 드리는 미사를 하게 됐다’ 그러거든요. 이 정도로만 의미를 따져보아도 큰일이었습니다.

지난 서울교구 사제평의회 때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우스갯소리로 쉬고 싶은 신자들은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이다. 내친김에 계속 쭉 쉬겠다. 이런 분위기도 읽힌다”라고 사제평의회 참석했던 신부님들이 가볍게 전해줍니다. 서울교구가 미사를 재개한 지(4월 23일) 벌써 2주가 지났고, 첫 주가 지난 다음에 바로 임시 사제평의회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사참여율이 약 30%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40%에 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생각은 미사참여율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지요. 여하튼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가 이에 대해 분명히 해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진 건 대요. 우리 모두 처음 겪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처음 겪는 일, 어찌면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아, 성바오로회 한창현 신부님, 중간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편의상 자유롭게 말씀하시면서 대화 세부 주제가 적혀있는 페이지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시기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소위 ‘비대면 사목’을 시작하였습니다. 평화방송 주관으로 TV미사도 했고, 교구장계선 주일미사 관



좌담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에 집중하면서, 교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를 갖고 이 사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코로나19가 야기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 믿음의 방식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면도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의 표현으로는 시청률이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 방송 통틀어서 미사 방송의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네요. 또 어떤 신부님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를 했지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나누실 이야기는 코로나19에 대해 교구별로 또 본당별로 어떻게 대처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효과를 낳았는지 살펴볼까요. 임기응변이었지만 적절했다면 어떤 것이 적절했고, 또 부족했다면 어떤 것이 모자랐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할는지, 거기서 한번 심각하게 신중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뭔지. 그런 것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올해 서품 받으신 노 신부님,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노동준: 정말 감성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처음 서품을 받을 때부터 약간 불안했어요. 사제서품식(2월 7일) 있던 날도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사제서품 후에 발령을 받고 본당에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미

사 중단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2주 정도면 그래도 좀 잠잠해져서 다시 미사를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지도 거의 석 달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는 죽음의 이르는 다섯 단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도 해봤다가 신천지에 분노도 했다가, “여기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있겠거니 아직 내가 못 찾은 거지 어딘가에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느님께서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 하면서 점점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동호: 감사합니다. 노 신부님, 서품 받은 새 신부가 첫 본당에 가서 신자들도 만나지 못하고 참 난처했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수도회는 어떠셨는지 한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한경호: 저요? 저는 먼저 오늘 좌담회 질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문항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보내봤어요. 일종의 설문조사를 해 본 셈이죠. 어떤 걸 했냐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라는 질문인데, 약 백여 분에게 문자를 돌렸어요.

우선 <개인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①사회적 거리두기로 했는지 ②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했는지 ③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등을 물었어요. 돌아온 답은 보통 ①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았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SNS를 통해 문자로 소식을 나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라고 물어보면서 ①성경읽기/묵주기도 ②평화방송 미사 시청 ③유튜브를 통한 신부님의 개인 미사 시청 ④다른 매체 활용 ⑤아무것도 안한다. 등등>을 물었어요. 앞서서도 나왔지만, 평화방송 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평화방송 미사도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요. 평화방송을 통한 미사 참례, 이건 아마 각 교구마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자동적으로 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혹시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꼈는가?>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아니면 ‘많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수도권 모임 자체가 없으니 더 그러셨던 것 같고요. 원래 저희 공동체(꼰솔라따선교수도회)가 매달 두 번을 모이거든요. 동두천, 대전, 부천 등에서 모이는데, 이 모임 자체를 다 없었어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그 다음 이태리에서 시작하자, 저희 수도권 총장 신부님이 모든 나라에 있는 공동체에서 모임이나 발령이나 이런 자체가 다 금지하셨습니다. 저희 수도회는 국제수도회라 그런 쪽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태리에 계신 총장 신부님이라 아마 다르게 느끼셨겠죠. 지금도 저희 공동체는 특별한 모임은 안 하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그냥 신자분 몇 분하고만 미사를 드렸어요. 아직은 신자 분들이 와서 미사를 함께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박동호: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중국에서 생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쯤에 공교롭게도 병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퇴원 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해서, 미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비겁하지만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코로나19가 세상에 미치는 충격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북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주로 ‘세계화’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읽을 책 목록을 만들었어요. 세상이 70-80년대부터, 그리고 이른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이 나올 때부터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고민은 2차 바티칸공의회라는 배경도 있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에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었어요. 신앙생활에선 아주 냉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가 이 시대 우리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신부다 보니까 <찬미 받으소서>란 회칙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생태 차원에서 새로운 성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회칙이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생태·경제·정치 문제나 세계질서 문제를 〈찬미 받으소서〉해서 보니까, 좋은 학습의 기회는 된 것 같습니다.

한경호: 제가 아까 자체 설문 조사한 내용 중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젊은 분들은 거의 50% 정도는 냉담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 꾸준히 하셨던 분들, 그냥 레지오 단체 같은 곳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내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또래의 결혼한 친구들 아니면 삼십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냉담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 성사 위주로 된 것 아닌가? 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성사라 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이런 부분, 성사 이외에 가톨릭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실제 선교지에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140~150개였으니까, 어느 한 공동체를 갈 때 보통 세 달에 한번 가게 되고, 세 달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비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 미사를 하면 신자들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새롭게 세팅되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우선 미사가 아니라, 먼저 환자를 방문합니다. 무척 더운 곳이지만 무조건 환자 방문을 하면 사정을 좀 알게 됩니다. 미사는 나중에 합니다. 미사 위주로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 미사 드리는 기계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미사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교리교육, 신앙교육이 뭔지 이런

부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와 비슷한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신자 분들에게 듣다보면,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체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수녀님, 성체 안 모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수녀님들께서는 좀 당황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사 위주로 너무 얽매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고민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새로운 사태’의 출현, 새로운 차원의 신앙 요청

오민환: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초대 교회도 격리된 공동체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았나요. 또 바오로의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모두 다 자신 있게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격리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격리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든 물리적이든 격리됐다는 것이, 단지 어떤 단절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신앙과 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봐요. 이 코로나19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키신저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New Normal)의 출현을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신앙, 새로운 차원의 세상살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요청되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가치로 생각하는 연대와 사랑 그것으로 귀결되느냐 아니면 완전한 자기 봉쇄로 가느냐, 하는 결단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도생 또는 각국도생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 해법은 연대와 사랑에

있고, 그 가치는 그리스도교 신앙 본질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화방송 미사가 시청률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성삼일 전례를 평화방송 중계로 대신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전례는 익숙했지만, 강론에 메시지가 너무 없었습니다. 공허한 울림만 남는 듯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전 국민을 향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신자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왜 미사 강론하시는 분들, 높으신 분들은 왜 못 해 주셨는지 안타까웠습니다. 미사 중계를 보면서 카메라가 명동성당 이곳저곳을 비춰줄 때, 신자들은 보이지 않고 성직자들만 띄엄띄엄 앉아 있는 그 미사, 그게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신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성직자만 남은, 그리고 마스크 끼고 말을 못 하듯 메시지는 없는 그런 교회 말이지요.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사목', 비대면 사목에 너무나 고민이 없었던 그동안의 시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격리된 상태에서 초대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동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서울교구 임시 사제평의회를 세 번을 했거든요. 갑자기, 세 번 했는데 내용은 이래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언제부터 미사를 하는 게 옳으냐? 교구 사제들의 평의회, 의사결정기구에서 오 선생이 말한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에 주는 의미가 뭐고, 사목에서 무엇을 우리가 깊게 성찰하고, 결의를 다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평의회 참석 사제들(약 40여 명)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미사를 안 한다. 그런데 안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미사를 다시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아직 언제 등교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하고 결정하지 못했을

때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미사를 재개 할지 안 할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5월 들어서 점진적으로 생활방역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10명 단위로 떨어진 다음에 그때 우리 교구장께서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미사하자고 하니까, 일선 본당에서는 촉박하고 당황스러웠지요.

오민환: 그러면 그렇게 긴급하게 사제평의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지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성찰적 대응이 없었다

박동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 '새로운 사태'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더 직접적으로 새로운 사태인데, 피부로 닿는 회중,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과 함께 하는 가장 상징적인 표징으로서 미사, 그걸 안 하는 비대면의 성체성사,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새로운 사태입니다. 그 새로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할 거냐에 대한 보다 진지한 질적인 고민 없이, 다만 언제 미사할거냐? 미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 또는 레지오 마리아를 할거냐 말거냐! 이런 거예요. 너무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목의 본질과 관련한 것에 대해선 성찰이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행정적, 절차적, 관료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 이게 세 번의 서울교구 사제평의회에서 보여준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선생의 이야기하고 곁들이자면 그런 고민이 좀 없었다. 없어도 너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녀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안 신부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다고요. 그럼 신부님께서 먼저 하시고 수녀님께서 해주시죠.

안충석: 지금 박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시대의 징표에 관한,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 위상과 위기 극복에 대한 성찰과 대응이 전혀 없는 무대응, 무원칙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아무 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상유지만 하는 교회 말이지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란의 시대에 맥락 없는 사목, 영혼 없는 미사

강신숙: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팬데믹을 겪으면서 맥락 없는 사목, 영혼 없는 미사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본당에 있잖아요. 교구의 동향이 본당으로 날아오는 건데, 정말 맥락이 없는 사목이에요.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어떤 맥락을 읽고, 사목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얘기가 정말 너무 크게 나가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그 동안 교회의 모든 사목 체제가 성직중심주의였기 때문에, 항상 사제 홀로 미사 집전하고 성사를 집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례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세상과 맞춰가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모든 지구적인 위기를 성찰의 내용으로 끌어들여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교황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경고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감지되는데, 문제는 신부님들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미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미사가 중요해요, 미사가. 그런데 저는 이 미사가 정말 맥락 없는 미사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 맥락 없는 미사, 영혼이 없는 미사, 미사를 위한 미사 말이지요. 미사 안 하면 큰일 나고, 주일미사 안 지키면 대죄라는 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 올스톱이 된 거예요. 박 신부님 얘기하셨듯이 “미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미사를 언제하지?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근원적인 고민이 없어요.

대면 사목, 비대면 사목에 관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구성원, 이러면 또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 사목회 임원, 그분들은 본당 신부님하고 거의 아바타 급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성당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경청의 장이 열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공동합의성’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왔잖아요. 본당이든 교구든 열린 토론의 장이 열리고, 모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어떤 미래,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위기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고민을 나누는 그런 장이 좀 열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동호: 그러니까 미사 중심, 전례 중심, 성직자 중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당 중심이라는 말이지요?

강신숙: 그렇죠. 우리는 자주 사람, 사회, 세상 이런 것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의미에서 성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지되다 보니까 혼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안충석: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역사적 인물로 살았던 예수님이 바랐던 교회공동체 모습으로 살았나,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핵심 내용인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라 봐요. 주일미사 참례하지 않으면 대죄라면서, 성사 생활만 강조했던 우리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최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 살아 나아가기>(빛두레 2019)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정체성 상실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옛날 교우 같으면 덕행을 담은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강조하는데, 지금 본당공동체에서는 신앙생활의 정체성, 핵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기도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본당신부나 교리교사가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교리, 생활교리, 사회교리, 성서공부 이런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예비자 교리 시간에 배웠던 그 지식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 쉬는 교우, 냉담 교우가 되고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없어진 것을 고민하다가, 그동안 <기쁨과희망> 잡지에 연재됐던 것을 모아서 책으로 냈어요. 다른 분들이 좀 더 이야기하면 그 근원적인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이야기 더 해 보세요.

성당 문도 닫고, 마음도 닫은 교회?

박동호: 이영우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이영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성당 문을 닫은 것'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당 문을 빨리 닫고 사회적 거리를 둬서 코로나 예방에 타 교회에 모범이 된 부분이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닫고 미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평화방송 미사, 유튜브 미사로 신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죽은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급식소가 폐쇄됨으로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한 분들도 돌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인 관악구 대학동에 ‘해피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인 가구가 75%인 지역입니다. 예전에 고시촌이라 불리던 곳인데 고시가 폐지되고, 고시원과 원룸에 고시에 실패한 사람들과 저렴한 주거공간을 찾아 들어온 중장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해피인은 식사 해결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점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구청에서 급식을 금지했습니다. 평소 거기에는 30~40명 정도 와서 급한 대로 한 끼를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당장 한 끼를 해결할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가난한 중장년들은 더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먹는 것에는 휴일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마저 강제로 쉬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주 문을 닫았던 해피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시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다 보니, 전에 나오던 봉사자들도 꺼리고, 그러다 보니 일손도 부족하고 부식비도 더 들어갔습니다. 매일 식사를 제공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월·수·금요일로 줄여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싸주고 화요일 하고 목요일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가 전례 때 문에 성당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최소한 봉사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주방만큼은 열어놔야 어땠을까. 그래서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해피인 같은 경우는 일할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본당에서 주방을 열어주고 도움을 준다면 봉사자나 일하는 공간도 여유로워 더 안전하게 도시락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례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교회 문을 다 닫은 것 같았습니다. 코

로나 사태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데 교회가 다문을 닫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남의 노숙자 식당을 운영하는 김희종 신부님은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움에 처한 노숙자들을 위해 직접 밥나눔보다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성남 안나의 집은 봉사자들이 더 많이 와서 도시락을 몇백 개씩 준비해서 노숙자들 많은 곳을 찾아가 나눠 주었습니다. 인천의 민들레국수집의 서영남 대표님도 당장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도시락과 함께 현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을 찾는 VIP 고객들은 돈이 없고 코로나 사태로 구걸하기도 힘드니까, 오천 원씩 주말에 줘서 식사를 해결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성당 문을 닫고 미사 전례를 중단했지만, 식당 문만은 열어서 주변에 우리가 돌보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더 필요하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해피인은 화·목요일은 지구장 신부님이 도시락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시락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성당에서 해결했는데... 배고파도 성당에 오고 몸이 아파도, 마음 아파도 성당에 오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나 기관에서도 다 하니까 교회가 과연 이런 새로운 사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건가? 그저 문 닫는 게 최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동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행정안전부가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간에 어떤 점에서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빈틈,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나오죠. 언론

을 통해서도 그런 빈틈에 관한 얘기들은 가끔 튀어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각지대, 빈틈을 메우는 일은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 경우에 지자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 특히 구청장 같은 경우, 우리 지역 중랑구청장은 부지런히 본당에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재원이 있는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일선 본당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와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민환: 가톨릭교회가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주교회의도 그렇고 각 교구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모아 어떤 일관된 목소리로 종합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올바르게 명확한 지침이 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런 지침이 없어서 오히려 더 각 지역 본당이 더 혼란스러웠던 건 아닌가 싶어요. 신자들은 단지 미사에만 세뇌된 듯하고... 우리가 교회와 신앙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노 신부님이 유튜브 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효과는 있었는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유튜브 미사의 효과?

노동준: 유튜브 미사 효과가 없다고 보긴 좀 어렵죠.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지요. 서품받고 본당에 가자마자 미사가 중단되고 2주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본당에서 수녀님들하고만 미사를 했었어요. 그때 박동호 신부님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어떤 청년이 신부님께 유튜브 미사를 청년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

게 되었어요. 매일 미사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평일미사 같은 경우는 100분 정도 그리고 주일미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300~400분 정도가 유튜브 미사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청년들도 “신부님 유튜브에서 미사 하시는 거 봤다. 가족이 모여서 주일에 함께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식으로 전해주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그냥 유튜브로 미사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 성당에서는 신자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메시지 전달이 가장 확실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신자분들은 미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이참에 성당을 쉬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본당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구나. 신자들을 위해서 본당에서 뭐라도 하려고 애쓰는구나, 라는 거죠. 물론 아까 강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참례가 전부인 것처럼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했다고 신자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경호: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팟캐스트를 계속 했잖아요. 강론을 매일 팟캐스트에 올리고 유튜브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내려요. 안 남기려고요. 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유튜브를 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 평일 미사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뭐냐면 신자들은 좀 안이해 지고 ‘나중에 봐도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린 본래 ‘실시간’(라이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을 좋아하거든요. 실시간이 지나면 바로 내려버려요. 계속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듣는 분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전례, 평일미사가 20~25분 정도 하면 강론하는 때, 강복하는 순간, 거양성체하는 순간에만 골라보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화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직접 성당에 가서 미사하는 것 하고

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젊은 층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요.

일선 교구청의 고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맹제영: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코로나 시국에 그동안 교회가 뭐했느냐, 그러시는데, 사실 교회가 한 것은 있어요. 교회에서 안 모이는 거 자체가 협조한 거예요. 지금은 초유의 사태니까 다들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가능하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연대’의 반대인(?) 모이지 않는 것, 그 ‘거리두기’ 상황을 유지하도록 협조를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교구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미사라든가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이것을 언제 어떻게 중단하고 또 재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사목 지침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구청 관리국의 경우, 한 달 두 달 이상 미사가 중단되니까 본당과 기관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본당 사제와 수도자 생활비와 성무활동비 그리고 본당 직원들의 월급 3월분은 교구에서 전액 지원했고, 4월은 어려운 본당만 지원했어요. 그리고 현재 2020년 교구납부금 본당별 탕감 액수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미사 중계를 하자고 하여 교구장 주례의 주일 미사 생방송 중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홍보국 차원에서 유튜브 사순 특강을 8차례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목국 특히 성인 사목, 청소년 사목을 올스톱시켰

어요.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목의 경우 현재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는 사회사목국의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현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FOJ(Fighting Overcoming Joining)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연대를 위해서 우선 'FOJ 기금' 모으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현재 그 기금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회사목국의 역할이 매우 커지리라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각 부서별 국별 업무 분장을 하고 실행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이 소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교구 선교사목국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우리신학연구소 쪽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분당, 지구, 교구에서 또 각 신자들이 이번 코로나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사목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목적 대응이 필요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의 협조라는 것이, 정부의 대책에 따라 '모이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주는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한다고 봐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사태에 대한 첫 경험, 당혹, 혼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준비 여부에 따라 교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리라 봅니다. 현재에 대한 비판은 잠시 유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 비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응이 뭐 워낙 큰 사

안, 다시 말해 세계관의 전환 또는 사목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있어요. 오늘 논의 초점을 이에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사목, 교회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안충석: 맹 신부님 이야기 중에 ‘무대응이 대응이다’ 그러셨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는 미사라든가 또 그 외 성사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 다시 말해 비대면 신앙생활 지침을 평화방송이나 교구 차원에서 계속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묵상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까지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것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잃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성서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지요. 우리 시대의 징표와 교회 위기 극복,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암으로 투병했던 동료 김택암 신부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암환자들은 절망에 빠지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다 하지 않게 된대요. 그 절망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매달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절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 절망에 이르는 길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는 확실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외교가의 거두인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박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투고한 기사를 읽어 봤어요. 그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한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한 번영의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세계는 국수적인 고립과 세계적인 연대 사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세계가 그 장벽을 뚫고 연대를 이루어 취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걸 고민 할 때라고 키신저는 말합니다.

그의 말을 떠올리면서,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봅니다. 교회가 장사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전의 예수님이 될 것인가, 결단의 때입니다. 그릇된 자본주의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낸 주님, 그로 인해 그 사악한 시대에 예수님이 살해된 그 이유와 같이, 우리 시대도 그 어떤 이해 상관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공동체가 과연 예수님이 세우시려 했던 그 공동체인지, 진정으로 성찰할 때입니다. 정말 오민환 실장이 말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좀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세가 끝나고 산업혁명 이후 교회는 계속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4차 혁명이니 AI니 하면서 비대면 혁명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신부님이 분당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쉬는 교우, 냉담 교우 그러지만 앞으로 그게 더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봐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자기만의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 교회가 자본주의로 물든 사회에서 이해상관을 따지는 교회공동체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것이 자신의 몸, 생명을 나누어 주신 성체성사 사랑의 실천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성체성사 사랑의 실천에서 공동체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아까 신부님 말처럼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인데, 조계종 스님들 5천 명이 정부의 재난극복지원금을 기부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뉴스를

듣고, 하도 답답하다 못해서 구요비 주교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우리 천주교에 청빈을 서원한 그 많은 수도자도 저 스님들과 같은 실천을 못 하느냐, 그리고 서울교구 신부들도 비록 청빈서원은 못 했더라도 자기 생계가 보장되는데 그 40만 원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열변을 토했어요. 구 주교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답이 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네요.

근데 각 종교 호감도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불교 30% 개신교 20% 가톨릭 10%대에요. 2014년 교황님 다녀가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앞으로 10% 이내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의 정체성과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앞으로 다가올 비대면 시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 신문 칼럼을 주의 깊게 읽는데, 종합해보면 패러다임 전환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국이 심어 놓은 자본주의 환상을 깨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닌 돈을 숭배하잖아요. 자본주의는 사람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자연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수가 되어 버린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요. 최근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코로나가 지구에게 보낸 편지’ 그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구 생명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리고 이웃과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돌아온다는 예언자적인 경고를 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연대와 평등, 공존의 가치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대전환의 역사적 시기입니다. 세상은 이런 데 우리 교회는 스스로 성전의 장사꾼이 된 것은 아닌지, 교회가 자본주의 돈의 논리로 돌아가고, 교구의 사제 인사는 사

목적인 인사여야 하는데,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교회가 사회보다 더 썩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만 해도 그렇지요. 사회가 하는 절반만쯤도 교회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무대응이 상책인가.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교회는 나름대로 계속 대응해야 해요. 교회는 어떻게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박동호: 네, 열정적인 안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이어가기로 하지요. (잠시 휴식)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19가 교회에 준 타격, 영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비상상황이었고, ‘일단 살아남자! 살아남고 보자!’가 이 비상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은 이 상황에서 교회가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검해 봐야 할 문제이겠고요.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의 세상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이 상황에서 교회의 사목, 교회의 영성, 교회의 길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맹 신부님께서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연대의 고리를 끊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더 연대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어떻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되찾아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사목, 교회의 영성, 그리고 교회의 길

맹제영: 예,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가 도대체 뭐냐? 아까 박동호 신부님께서

〈찬미받으소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회칙이 왜 나왔냐면 기후온난화와 관련해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 국제회의를 열었는데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이 협정 발효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에 대한 교회의 응답으로 〈찬미받으소서〉가 나왔거든요. 〈찬미받으소서〉의 배경에는 ‘기후온난화’라는 거대한 틀이 있는 거지요. 기후온난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가 인류에게 백신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인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백신을 지구가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의 법칙대로 도도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후온난화라는 어떤 커다란 백신 아래서 코로나19라는 백신, 곧 지구는 자기방어 체계를 작동시킨 거라고 생태학자들은 해석하거든요. 지구는 인류의 행동에 대응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커다란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 ‘지구온난화’, ‘찬미받으소서’ 셋은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구의 코로나19라는 백신에 대응해 인간의 백신도 작동해야 하는 건데, 생태학자들은 백신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백신, 그런데 이게 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1~2년 걸린다고 하죠. 두 번째는 사회적 백신. 사회적 백신은 다름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동 백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 될 것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잘 아시는 ‘생태 백신’인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가 기후온난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열대 살았던 동굴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기후온난화로 이제 아열대 쪽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거기가 지구온난화로 전부 열대화가 되니까 바이러스가 생존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정리한다면, 기후온난화와 코로나19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기후온난화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문명체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야말로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간의 자연과의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자세이며 이것이 생태 백신입니다. 이 3가지 백신이 앞으로 인간이 새로운 사태에서 취할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구역반 모임 등 ‘교회 모임’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움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행동 백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재검토했다는 말이지요. 자본이 노동을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보듯이,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듯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타자에 대해 자기 욕망대로, 자기 식대로 막 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교회에서 드러난 것이 ‘수도자의 정결’에 관한 문제거든요. 거리두기를 할 때 어떤 사람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요. 가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구조적으로 나와 좀 먼 사람과는 거리 두기(Let it be!)를 하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거리를 둘 사람과 거리를 뒤흔는 안 되는 사람, 그렇게 거리두기를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영성과 삶의 방식이 앞으로 요청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표현된 게 ‘정결’이라는 덕목으로 보이거든요. 포르노에 감염된 젊은이들이 뭐 ‘정결’이란 덕목을 얘기하면 콧방귀 끼지만, 앞으로 정결이라는 덕목은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겁니다.

‘생태 백신’에서는 이제 인간이 자연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인간은 자본 축적을 위해 자기욕구, 자기욕망대로 자연을 무한 착취하는 이런 문명과 삶의 방식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생태 환경 진영의 운동은 굉장히 가열차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자들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덕목, 곧 자연으로부터 정말 필요한 만큼 취하는 것, 필요 이상의 것은 나누는 삶의 방식인 이 가난의 덕목이 앞으로는 굉장히 강조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

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태껏 인류 역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최소한 4~6억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 해요. 교회가 이런 정결과 가난이라는 영성적 삶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 증가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선택과 투신, 이것이 그야말로 ‘순명’이라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성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마음으로 부터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측면이 아닐까, 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정결과 가난, 그리고 순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목적 틀을 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박동호: 맹 신부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순명과 정결과 가난이라는 복음삼덕을 새로운 지평과 차원으로 확장해서 교회의 갈 길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찬미받으소서> 회칙으로 설명하면 ‘생태적 회심’, ‘생태적 전환’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기후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히말라야 빙하와 북극 남극에 있는 바이러스, 거기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지구온난화로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지금 히말라야에 터널을 뚫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투입된다는 말이 있지요. 히말라야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여러 큰 강의 발원지라네요. 여러 강이 흘러내려 간다는데, 중국이 터널을 뚫어버리면 그 큰 강들의 물줄기가 돌려진답니다.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공장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히말라야에서 녹는 물까지 다 끌어가려고 한다

는, 말도 있어요. 이러한 무모하고 탐욕적인 발상을 보면서, 또 바이러스 창궐의 시대에 생태회심, 생태전환을 복음삼덕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교회가 재무장, 재설정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민환: 지금 박 신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인류의 마지막 세기일지도 모른다, 22세기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생태계를 망가트리면 인간에게 더 이상 22세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경고가 허튼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군요.

한경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쓴 목적이 아마 후손에게 뭘 남겨 줄 것인가, 라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교황님은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찬미받으소서, 160항) 물으시면서, 미래 세대가 살 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첫 세대가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의 시대, 사목의 주체, 권리, 책임은 교회구성원 모두에게

강신숙: 이 좌담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대면 사목에서 비대면 사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주제가 흥미를 끌었습니다. 저도 본당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자들의 고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목에 솔깃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해나가야 할 것은 대면이나 비대면과 같은 사목적 기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물론 효과적인 비

대면 사목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사목적 주체나 권한이 성직자에게만 몰려 있고, 나머지 계층들은 모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면 또다시 무력감으로 빠져들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비대면 사목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신자들이 자기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신앙생활과 미션을 모색해 나가는 힘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로 늙게 하는 현재의 구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회를 ‘야전병원’이라는 이미지로 등장시켰을 때부터 이미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교황님의 목소리는 세상의 가장 ‘긴박한 사태’에 맞춰져 있어요. 기후위기도 코로나19이든 모든 형태의 위기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 배제된 자들, 노약자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해 왔지요. 그러나 우리 중 다수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미사와 성사생활, 성당을 갈 수 없다는 공간적 제약만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을 뿐이에요.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엇을 가장 우선적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고르면서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성직자와 신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목자들만 모든 책임을 떠안고 고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는 모두가 나서서 함께 동참하고, 모색해 나가는 동반자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팬데믹이 닥친다 해도 인간은 서로가 연결된 끈을 놓지 않습니다. 교회공동체는 이 끈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하고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고 이어주는

가교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들이 많아요.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 서로를 격려하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미 팬데믹은 인류에게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조건을 악화시키고 생태계의 서식처를 파괴하며 지구 전체를 쓰레기로 만드는 이기적 욕망의 시늬를 당장 멈추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함께 모색하고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사목'이며, 이런 사목의 주체와 권리, 책임은 어느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구성원이 함께 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들이 과거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만 이번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스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시 중에는 모두가 한 가지 사실만 걱정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복구하고 기후위기를 멈출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목의 최대 과제이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사와 성사생활은 이런 복음적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표징적 도구로 혹은 진리의 안내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경호: 코로나로 이태리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우리 수도회 신부님들도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브라질에서 함께 일했던 할아버지들도 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돼서 돌아가셨어요. 매일 매일 사망자 수를 보는데 이태리에서 3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패닉에 빠졌어요. 저희 수도회가 양로원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정말 간호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요양원에 가서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들이 자기가 감염될 수 있다면서 겁을 먹는 거예요. 총장님께 이런 현실에 관해 편지를 쓰면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뭘 해

야 하는지, 물었어요. 얼마 전 나이로비 난민촌에 사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나이로비 수도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난민촌이 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겁이 나다 보니까 거기 천막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일종의 혐오 같은 거죠. 또 빈민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막 때리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죠.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그곳 선교사에게 기자가 “이 상황에 선교사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어요. 선교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버려 둘 수 없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현존해야 한다는 것,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총장 신부님도 저희들에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도망가지 말라!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저도 좀 그랬어요. 인천교구 같은 경우 사제 분들이 다 돌아왔어요. 공부하고 유학하던 분들이 거의 몇 명 빼고는 다 돌아왔어요. 박사 학위 거의 끝나는 분들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다 돌아왔어요. 그게 참... 한편으론 이해도 되지만, 오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분들은 안 나오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신교 선교사분들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우간다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까 ‘안나의 집’ 말씀도 잠깐 있었지만, 제가 아는 오블라피선교수도회 신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지금 도시락 싸서 가난한 사람 만나고 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 이제 사람들도 안 오는데 별로 할 일이 없겠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신부님은 “엄청 바빠요. 사람이 더 필요해요. 도시락 가지고 나가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를 돌아보고 다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안충석: 아까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위사람부터 뭔가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은 위사람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요. 사제생활 60년 해 보니까 아래에서 일이 되도록 위에서 주선만 해 줘도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위사람에게 성령은 안 내려와요. 내가 80년을 살면서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웃음)

박동호: 지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합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맘에 드는 사람과는 밀착,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과는 배척,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하고 같이 지낼 사람하고는 푹푹 멍치게 되고 불편한 사람은 밀어버리는 현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진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복된 얘기지만, 이참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성당 안 갈까? 가봐야 뭐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 같아요. 여태까지 어쩌면 억지로 성당에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당 안 가도 된대, 관면해준 대, 그러니까 성당에 더 안 가게 되지요. 거리두기 때문에 성당엔 안 와도 회기역, 이문역 근처 술집은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더 끌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 한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나이로비나 이태리 선교사들은 그냥 거기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걸 못 느낀 거죠. 우리 사회는 제3자를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들은 거죠.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랄까 모범이 없어요. 우리 내부에 말하자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던 누구,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하게 투신했던 누구, 그 모범 사례가 글로만 남거나 이야기로만 전달 되지, 실제 모델이 그만큼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모범이 되도록 정말 고군분투해야겠지만, 모범을 찾아내는 일, 소박하

지만 일상에서의 교우든 수도자든 신부님이든 고위성직자든 평신도든 아니면 신자가 아니든, 정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큰 차원에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익숙함과 결별, 그리고 선언이 아닌 실천을

오민환: 그리스도교 국가가 대다수인 유럽 사람들은 주일날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지 않고, 축구장에 간단 말이에요. 축구장에 가서 일종의 종교적인 체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성당은 텅텅 비어가고 축구장은 꽉 차 있어요. 하긴 지금은 성당이든 축구장이든 텅 비어 있긴 하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데이비드 윌리스의 칼럼인데, 제목이 '종교경험으로서 로저 페더러'입니다. 페더러의 테니스 기술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종교적 엑스터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 비교가 좀 우습지만, 테니스는 그런 감동과 열정을 주는데, 지금 성당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익숙한 것에 의해서 익숙하게 길들어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과 결별하면서 어떤 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울고 싶는데 뺨을 맞은 격으로 성당을 안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당 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함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성당에 다니면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거룩함을 체험하고 살았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어릴 적 본당 신부님이나 본당의 수녀님에게서 보았던 어떤 거룩함의 모습,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룩함이 성당 주변에서 상실되면서 일반 신자들은 어떤 좌표를 잃고, 수도자나 성직이나 우리와 크게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해 간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어느 본당 신부님은 사목회 임원 몇 명

만 모아놓고 따로 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헌금도 내게 하고,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본당 재정이 어찌고저찌고 돈타령하면서 하소연하고요. 사정은 딱 하지만, 이걸 정말 약속 위반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해지고, 아까 안 신부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모습을 이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이걸 핑계로 저도 성당에 안 나가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분 핸드폰에 무슨 성당 바코드가 찍혀 있는 걸 봤어요. 이제 성당도 바코드화 돼 버렸잖아요. 이제 바코드만 대면 어느 성당에나 갈 수 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바코드가 없어요. 그만큼 제 자신도 성당을 등한시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목자들은 더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신자 없는 교회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충석: 아까 한 신부님이 아프리카 난민촌에 남은 선교사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났어요. 48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간 이 신부님에게 기자들이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남수단 톤즈로 가느냐, 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십 남매를 기르신 내 어머니 모성애, 내리사랑을 보고 배웠고, 어머니 사랑의 향기에 이끌려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 아프리카 톤즈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도 그냥 친구가 되고,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전부였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생애를 보면서, 다들 잘 아시는 로마 시대 때 베드로가 무시무시한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 예수님을 만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퀴 바디스 도미네”(주님 어디 가십니까)라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버린 양들을 구하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답하시지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 순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교회여, 그때 너 어디 있었냐” 물을 겁니다. 그 때 “나도 같이 코로나를 극복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동호: 오 실장님 이야기처럼 코로나 이후 거룩함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땀 신부님 말씀과 이어보면, 코로나 이후 복음삼덕의 재발견, 이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걸 ‘연대’라 표현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교리 문헌에서는 ‘공동선’(common good)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찬미받으소서>에서는 맥락에 따라서는 ‘보편선’(universal good)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생태전반의 관점에서 보면서, ‘연대는 공동선의 현신’이라고 이해합니다. <찬미받으소서>의 시각으로 보자면 ‘보편선’으로의 현신, 투신이고, 그것을 땀 신부님은 순명이라는 덕목으로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성의 측면이고, 교회적으로 보면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개조와 같은 운동의 차원과 연결된다고 생각해봅니다.

맹제영: 강 수녀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늘 선언만 있었지 실천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젠 늘 교회가 들어 왔던 말이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고,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동호: 유럽 중세교회의 몰락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되었지요. 적어도 유럽에서 교회의 쇠신과 개혁이 수도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교구의 세속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 대한 수도회의 자극이 있었고, 수도회의 영적 쇠신이 교회를 살렸다고 크게 평가합니다. 교회의 위기, 적어도 유럽 교회는 2차 바티칸공의회가 아직은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3천년기라 말하면서 남미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그리스도교의 축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 200여 년의 깊은 내공을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너무 일찍 순이 꺾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강신숙: 제가 언급한 요지는 어떻게 하면 교회 구성원이 함께 위기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 질문은 사실 ‘공동합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좌담도 그렇고 좋은 의견들이 항상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이동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정말 세계 각처에서 이 문제를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나 자본주의 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동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류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이 함께 모이는 일이 안중석 신부님도 언급하셨지만 교구차원이라든가 시노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들도 고민은 하겠지만 항상 기존 사목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외연을 넓혀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더 많은 상상력으로 동력과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지, 하는 겁니다. 본당 신자들도 자신들이 지금껏 해왔던 루틴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착된 기계적 사고를 깰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신부님에 제시했던 방향들은 〈찬미받으소서〉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이슈나 주제들을 놓고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이 펼쳐질 수 있다면 신부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사목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사목의 수평적, 혹은 생태적 이동이라고 할까요. 회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것이지, 단지 기존의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이 곧 복음적 주제요 선포의 주제라는 사실을 깨치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부님들은 교회공동체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십을 발

휘할 수 있고 또 그런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공동합의성’이라는 장이 열리면 현재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감이나 자극을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박동호: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강신숙: 예.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면 좋겠다는 거지요.

‘공동합의성’, 실험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박동호: 공동합의성,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이것 우리도 두 번 정도 시험을 해 봤잖아요. 핵발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요. 이른바 시노달리타스의 일환이죠. 이런 공론화 과정이 독일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수녀님 말씀은 정말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서 하느님 백성이 한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 지 그 뜻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것도 진심으로 말이죠.

강신숙: 그런데 그게 꼭 교구 주교님의 승인을 받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몇몇 뜻있는 신부님들께서 기획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민환: 독일의 예를 들면요. 독일은 ‘우리가 교회다’(Wir sind Kirche)라는 평신도 단체가 있어요. 교회 내 일종의 시민단체라 볼 수 있는데, 이 단체를 제도 교회가 쉽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과 쇄신에 관해 계속 제안하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고 요청하니까, 제도 교회에 쪽에서 보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단체의 의견을 쉽게 묵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러면서 독일교회는 ‘가톨릭의 날’(Katholikentag)이라 해서 2년마다 독일의 도시를 돌

아가며 열립니다. 전 교구 신자들이 다 모입니다. 벌써 100회를 넘겼어요. 거기서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수렴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성북구 쪽에는 수도회가 많거든요. 수도회가 숙소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혜화동 신학교까지 함께 하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요. 행사 티켓 하나로 여러 곳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언젠가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가톨릭의 날 행사에서 하젠휘틀 신부님(교의신학 교수)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줬다고 교수직이 박탈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당시 큰 뉴스거리였지요. 하젠휘틀 신부님의 책 〈하느님 - 과학시대를 위한 신론 입문〉(1983)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요.

하여튼 수녀님이 말씀대로 교회가 성직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성직자들이 한 발 빼 주거나 아니면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지요. 요즘 197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 시노드 문헌 〈우리의 희망〉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 시도노 선언문은 정치신학자로 유명한 요한 밥티스트 메츠 신부님이 작성한 초안으로 이루어졌어요. 메츠 신부님의 정치신학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메츠 신부님의 진보적 신학을 수용했던 이유는, 그만큼 교회의 위기가 심각했던 거죠. 독일 교회의 위기는 바로 유럽 교회의 위기였는데, 1968년 유럽 혁명, 소위 ‘68혁명’ 이후로 교회는 사회의 급진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반전운동, 사회주의 물결, 동성애 문제, 교회 내 각종 스캔들 문제 등등 교회는 탈출구를 찾기 힘들었고, 독일교회는 시노드를 개최하고 진보적 신학 사상을 수용하면서 교회의 희망을 찾습니다. 교회 구조의 쇄신과 변화를 모색

하는 것이지요.

박동호: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개혁을 시도하고 반성했는데 교회가 살아났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 대처가 늦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의 68혁명 이후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안 돌아와요. 무슨 말이나면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때를 놓쳤을 때 혹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이죠. 교회의 응답이 혁명적이라면 진보적이든 쇄신과 개혁을 말하든 세계관, 교회관 자체를 바꿔야 해요. 어폐가 있지만, 영국성공회는 살아남았잖아요. 영국성공회는 여성 주교님도 나오고 여성 신부님도 나오고 그랬잖습니까. 다시 말해 응답을 할 때는 말이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이진 않지만, 응답을 정말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충석: 오 실장이 말하는 독일에는 평신도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나름 깊이 있는 신학적 바탕도 있는데, 우리는 그 토양이 너무 없어요. 평신도 시노드나 진보적 신학 사상이 꽃피기가 쉽지 않아요.

오민환: 며칠 전 외신을 봤는데 프라이부르크 대학 기초신학 교수가 부활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문 강론을 보고 비판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황님,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다. 과학자의 말을 믿으세요. 과학자들한테 이 코로나 사태를 맡기세요.’ 이런 식의 얘길 하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놀랐어요. 주술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박동호: 우리 보좌 신부님한테 자주 그런 얘길 해요. 수녀님 얘기랑 좀 비슷한데,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시간적으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죠. 시

간적으로 그런데 이런 혁명의 시기에는 바뀔 수도 있다. 우리 보좌 신부님이 본당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당에 오는 것도, 신부되는 것도 아주 어렵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축복의 자리긴 하지만 조마조마했지요. 그런데 서품 받고 본당 오기 전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새 신부 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한 거예요. 제일 신날 때, 구두 신고 여기저기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닐 때인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첫 본당에 와서 교우들한테 ‘저, 부임했습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 하더라도, 저는 20~30년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은 어쩌면 관성일 수도 있고 통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 일 수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게 경륜일 수 있지만, 이런 비상한 시대에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정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리 갑시다!’ 할 때 따라 주는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총석: 박 신부님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 광화문 촛불 집회 때 몇 번 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는데 확실히 그게 아래로부터 성령이 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잘 못해서, 신자들이 “이게 교회냐!”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도 역시 위로부터 성령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장을 만들어야 해요.

박동호: 제가 수녀님께 말씀드리는 것, 또 우리 노 신부님한테 그런 바람을 갖고 기대 비슷하게 하는 것, 또 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신학적 토대가 없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기우일 수 있어요. 어쩌면 젊은 세대는 “신학이 뭔데? 사람 사는 데 사람의 언어와 신학의 언어가 뭐가 달라” 이럴지 몰라요. 기존의 통념으로는 격에 안 맞을지 몰라도 좀 더 개방성이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성령께서 그 모임을 인도하셨다는 상호신뢰만 있으면, 그렇게 만든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자신 있게 표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견입니다.

우선 교회가 향할 방향을 찾는 공동의 논의라도 시작해야

맹제영: 아마 앞으로 이제 5~6월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 같은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이 열릴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녀님 말씀대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죠. 빨리 앞당겨 볼 수도 있고.

강신숙: 여기가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연구원이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떤 희망이죠.

박동호: 사실 저희가 이 좌담회를 준비한 것이, 어떤 해답을 찾자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만 어느 쪽을 향할지, 그 방향성을 찾아보고 수녀님 말씀대로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시간이었지요. 불뚱이 어디로 튈지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수녀님의 제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가 새롭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취지가 될 것이고 그 자체로 좋은 의미가 될 거 같아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되찾는 어떤 그런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에서 심포지엄이든 무엇이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어요.

강신숙: 심포지엄 같은 형식을 빌려도 좋겠어요. 맹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위기는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왔던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고, 어떤 뜨거움

을 체험하고, 그렇게 사고가 확장된 사람들이 본당으로 돌아가서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리는 본당신부도 자기 본당 신자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본당 구성원들이 자신의 본당 상황에 맞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 보는 거죠. 공동합의성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해나가는 진행과정이에요.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반드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의 장을 막연하게 시작하면 안 되겠죠. 공동준비위를 만들어서 함께 이 공론의 장에 불씨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뜨겁게 타올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거죠.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위한 불씨, 그리고 균열

한창현: ‘비대면 사목’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전례에 익숙해진 신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례 참여를 등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이 등장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당에 나오는 신자 수가 감소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적 신앙생활의 형태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방송 미사를 보느라고 봉성체 온 사제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방송으로 하는 미사가 실제 성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미사를 보는데 익숙해지면 신자들이 느끼는 미사의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를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루 중에 편한 시간에 동영상 관람하듯이 미사를 시청하는 것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 미사 시청이 미사 자체에 대한 가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 미사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전례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관성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세월호 이후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 충격이 강하다고 해도 사람들의 관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비대면 전례만이 가능한 충격적인 현실이 되었다고 해서 온라인 형태의 신앙생활로 획기적인 전환이 당장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와는 별개로 이미 온라인 미사에 익숙해져 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 등장과 관련하여 강 수녀님께서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공론장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보셨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때 전례와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공론장의 형성이 녹록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그 자체로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론장과 관련하여 흔히 하는 오해가 여러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제약 없이 이야기하면 훌륭한 공론장이 형성되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상적인 공론장은 모든 상황이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도 매우 낮은 확률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공론장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수녀님께서 어떤 전환을 위한 불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것을 균열을 내려는 노력이라 보고 싶어요. 실제로 개신교의 경우에

는 온라인 예배의 가능 여부를 두고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CBS에 나와서도 싸우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싸웁니다. 신자들은 데모도 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기존의 이해에 끊임없이 균열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온라인 미사가 맞다 틀리다,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온라인 미사의 적합성 여부를 신학적으로 논쟁하였다면 그 자체로 불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거 자체가 미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함께 모여서 미사를 하는 것만이 참된 전례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 들여온 사실입니다. 여기에 균열이 생기면, 우리는 왜 모이는 걸까, 누가 모이는가, 등등의 여러 질문이 따라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정말 오늘날 필요한 전례가 어떠한지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서야 방송 미사가 익숙해진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신앙생활이 형태를 고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2020)입니다. 구약시대의 재앙, 하느님의 재앙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 두 가지를 연결해서 비교하는 책인데요. 개신교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관한 신학적인 접근들이 이미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입장에서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작업들이 책으로 묶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신학적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학적 접근과 별개로 제가 몸담고 있는 수도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떨어져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선별적 거리두기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자들은 떨어져 살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공동생활 안에서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수도자의 신원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수도원의 신앙생활 형태에 주목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을 위한 또 다른 자리를 기대하며

박동호: 한 신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교회의 전환을 위한 불씨는 무엇이고, 불쏘시개는 무엇이 될지 고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그럼, 계속 듣기만 하신 강 신부님 말씀을 듣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강 신부님!

강현우: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몇 달간 무력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삼양동 선교본당 지역 노인들을 방문해 보기도 했는데, 할머니들께서는 그런대로 견디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만남의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빈민사목의 현장은 더 만나고, 더 함께 하는 실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